

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 상생협력 선언 -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수)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 * (참석)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 최만림 경상남도 부지사,
▲ 김태형 미래항공(협력사) 대표이사, ▲ 방남석 삼우금속공업(협력사) 대표이사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는 달리,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 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선언 주요내용〉

- 원청사는 ①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②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③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④ 공정거래 관계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협력업체는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② 연구개발·생산성 향상 노력
- 정부·자치단체는 원청과 협력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상응하여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 등에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사가 단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근로조건 격차나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원·하청 기업이 지역적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기반의 합리적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실천하게 되면 ▲청년과 숙련인력의 유입·양성,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남지역-항공우주제조업 노동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은 법률적 규제나 타율적 강제로 해결될 수 없으며,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지속 가능하다”라면서

“중앙단위에서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는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으로 상생협의를 통해 지역의 이중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업체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그간 협력업체의 어려운 사항들을 검토하여 연 200억 수준의 선제적인 상생지원 정책을 강화해왔고, 항공우주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용부·지자체·원청사·협력업체가 한 팀이 되어 원·하청 상생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공동선언식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붙임3]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

| | | | | |
|-------|--------------------|-----|------------|--|
| 담당 부서 | 노동개혁정책관 이중구조개선과 | 책임자 | 과 장 | 박은정 (044-202-7761) |
| |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 박종길 (044-202-7765) 이나래 (044-202-7768) |



붙임 1**공동선언식 개요**

- 일시 : 2. 14.(수) 14:00 ~ 15:00
- 장소 : 한화그룹 본사 3층 대강당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 참석자 (내빈)
 - (고용부 2)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등
 - (KAI 2)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김건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SCM기획실장
 - (한화 3)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류영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CRM실장 (부사장)
김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지원실장 (상무)
 - (협력사 2) 김태형 미래항공(주) 대표이사 <KAI 협력사>
방남석 삼우금속공업(주) 대표이사 <한화 협력사>
 - (지자체 1) 최만립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전문가 1) 이상섭 이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세부일정 ※ 공동선언문 서약식 및 기념 촬영까지 공개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14:00~14:03 | 3' | • 개회 및 영상 시청 (KAI, 한화 소개 및 의지 표명) | 사회자 |
| 14:03~14:05 | 2' | • 참석자 소개 | 참석자 |
| 14:05~14:20 | 15' | • 인사 말씀 (장관 → KAI → 한화 → 협력사 → 경남도, 각3분) | 정부·기업 |
| 14:20~14:25 | 5' | •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 전문가 |
| 14:25~14:30 | 5' | • 공동선언문 서약식 및 기념 촬영 | 참석자 |
| 14:30~15:00 | 30' | • 자유 토론 | 참석자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이사님들과 경상남도 부지사님, 그리고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청 상생모델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은 생산과 노동에 있어 불공정 격차를 줄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입니다.
 -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밑바탕이라는 점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러한 원·하청 상생은 법률적 규제나 타율적 강제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오로지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격차가 좁혀질 수 있으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 석유화학업,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 및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과 연대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었으며, 오늘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상생협력의 또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역 단위 항공우주제조업 상생모델 의의]

- 항공우주제조업은 기계·전자·소재·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자, 국가위상, 군사안보, 방산수출 등의 측면에서 매우 막중한 전략투자산업이며,
 - 부가가치가 높고 전·후방 연관산업이 많아 일자리 창출과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큼니다.
 - * ▲ (생산액/수출액) 6.3조원/2.5조원 ▲ (사업체/종사자) 1,819개사/2.6만명
 - ▲ (업종별 부가가치율) 항공 48%, 철도 39%, 조선 33%, 자동차 28%
 - 다만, 산업 특성상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 등에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사가 단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근로조건 격차나 인력난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한편, 항공우주제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같은 주요 기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소제조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항공우주제조업 매출액 중 75%가 경남에서 발생 <23. 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 이에,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 달리, 최초로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자율적 논의의 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 불공정 격차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업계가 함께 지역적 여건과 항공우주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진솔한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공우주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

- 항공우주제조업은 지역 단위 상생모델인 만큼, 대기업과 협력사, 전문가, 중앙정부에 더해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그리고 「협력사」가 항공우주제조업계의 근로조건 개선, 공정거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과제들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 「자치단체」·「정부」는 제도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노력과 의지를 아낌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 * ▲ (2·3차 협력사 복지지원) 신규 50억,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신규 122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23. 99억 → '24. 118억 ▲ (공동안전컨설팅) 신규 126억 등
- 특히,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원·하청 상생의 차원에서 관련 의제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정부도 1월 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는 등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증층적으로 이뤄질 때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촘촘하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업종-지역-기업’ 각 영역에 뿌려진 상생모델의 씨앗이 자라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 된 만큼 ‘중앙 단위’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상생협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꺼이 참여의 뜻을 보내주신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력사, 경상남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항공우주제조업 노동시장은 더욱 활력이 넘치고, 근로자들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하며,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 오늘 상생과 연대의 다짐을 날개 삼아 항공우주 제조업계가 더 높이 비상(飛上)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력업체, 경상남도, 고용노동부는 항공우주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속한 제반 사항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1.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①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 ② 협력업체의 숙련 인력 확보, 전문성·생산성 제고 등 기술경쟁력 제고 ③ 공정한 거래 관계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조성 ④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2. 협력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의 상생과 항공우주제조업계의 발전을 위해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②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 등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
3.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협력업체는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상생협력 실천협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4. 경상남도, 고용노동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비롯해 항공우주제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협약의 이행에 상응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5.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경상남도, 고용노동부는 이 선언에 기초한 실천 내용이 원활히 이행되고 항공우주제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4년 2월 14일